



읽는다는 것의 역사

『읽는다는 것의 역사』는 ‘읽는다는 것’의 역사화를 시도한 최초의 책이다. 이 책은 인류 탄생 이후 모든 읽기를 다루고 있다. ‘음독에서 묵독’으로라는 읽기의 혁명적 변화는 12세기와 13세기에 글의 역할 자체를 철저하게 바꾼 생각의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.

• 로제 사르티에 역음 · 이종삼 옮김 /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발행



21세기 아트센터의 예술경영 리더십

아트센터의 조직 능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실용적 방법론과 문화예술 분야의 ‘창의적인 매력’을 추구하는 전문 인력들에게 체험적 성공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한 최초의 책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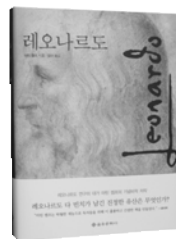
• 이인편 지음 / 아트북스 발행



이지누의 집 이야기

요즘 집 구경을 간다는 것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. 대개는 아파트 시세를 묻고 몇 평인지 둘러보고 집안을 장식한 가구와 온갖 인테리어를 살펴보는 것이 고작이다. 우리에게 집은 무엇이었는가? 수백 년 전이 아니라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는 어떤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엮으며 살았을까? 오늘날 머무는 집의 의미는 무엇일까? 물론 오늘날 집에서도 버젓이 사람이 잘 살고 있건만 다시 사람을 찾겠노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.

• 이지누 지음 · 류충렬 그림 / 도서출판 삼인 발행



레오나르도

말로는 찬미할 수 없는, 인류 역사가 낳은 레오나르도의 천재성을 마틴 켈프는 현대에 가져와 ‘만일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살아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’라는 색다른 접근으로 현대인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. 최근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소재로 한 『다빈치코드』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「다빈치코드」의 개봉을 앞둔 현 시점에서 그의 천재성과 작품,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숨겨진 이야기와 진실을 밝힌다.

• 마틴 켈프 지음 · 임산 옮김 / 을유문화사 발행



디지로그

디지로그(Digilog)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과도기, 혹은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. 한때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요란하게 등장했던 디지털 기술은 그 부작용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들이고 있다. 초기 정보사회가 일으킨 IT 거품과 부작용을 개선하면서 도래할 후기 정보사회의 선두주자로 디지로그가 떠오르고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다.

• 이어령 지음 / 생각나무 발행